

서운영의 '집과 사람'



더욱 화려해지고 안전해지는 도시

2015년 청양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덕담을 주고 받는 법이라, 올해 건축과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할까 생각한다면 더욱 크고 화려해지는 도시, 한결 안전해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시의 공기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모토 아래 중세시대 등장하기 시작한 도시는 현대에 이르면서 점차 거대해지고 화려해지고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전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지방의 거점도시들도 더욱 크고 화려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광주도 주변지역까지 모두 광주권역에 속해 광역시로 불리는 것처럼, 도시는 점차 광대해질 전망이다. 한편, 그럴수록 도시 중심부는 더욱 특화되고 화려해져서 도시 속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파리 하면 에펠탑과 노트르담 성당이 떠오른다. 그러나 21세기 파리를 상징하는 라데팡스 구역이 있으며 일명 신 개선문이라 불리는 라데팡스에서 구 개선문까지는 거대한 보행자 도로와 지하 쇼핑몰로 구성되어 있다. 고풍스럽고 우아한 이미지의 파리 외에도 이렇듯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다.

도쿄 역시 마찬가지다. 중심부에 있는

메이지 신궁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지만 신궁 밖을 벗어나면 바로 하라주쿠 거리가 있어 매주 토요일이면 만화 주인공들의 코스프레가 이루어진다.

이렇듯 도시가 거대해지고 지역별로 특화되면서 건물 역시 대형화·복합화될 전망이다. 서울의 예를 들어 보면 코엑스몰이라든지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등은 그 건물의 용도를 하나로 집어내어 말할 수 없는 복합용도의 건물이다. 넓고도 긴 쇼핑몰을 견고 있도록한 도시 속의 도시를 걷는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두 빌딩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복합건물이 되는 예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인 파리의 프랭탕 백화점은 1850년대에 신축된 본관 외에 그 주변의 두세 개 건물이 어우러져 하나의 프랭탕 콤플렉스를 만들고 있다. 심지어 도쿄에는 일본의 양대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큐 백화점과 이세탄 백화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백화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업종이 모일수록 더 인한효과가 큰 법이어서 건물은 거대한 복합체이자 도시 속의 도시로 등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해지는 건물은 그 자체로도 광고효과가 크다. 예전에는 주로 네온사인 간판만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건물의 벽면 전체를 LCD 스크린으로 만들어 하나의 광고판으로 이용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유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광화문 앞에 설치되어 있고 곧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더욱 편하고 안락한 도시가 요구될 것이다. 20~30년 전만 해도 대도시에는 육교가 많았다. 횡단보도는 드물었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도로에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아서, 초등학생 시절에는 횡단보도는 위험하니 아예 육교로 다니라고 배우기도 했다.

사람보다 자동차를 우선 배려한 도시였지만 이제 육교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가 들어오고 있다. 요즘 전통월채어를 탄 노인들이 많이 보이고 이제 지하철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대신 노약자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한창이다.

한편으로 예전에는 장애자용 화장실, 장애자용 저장버스 등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장치가 특별히 따로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일명 무장애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본디 건물이 높아질수록 그림자도 함께 길어지는 법이다. 도시가 거대하고 화려해질수록 그 이면에는 익명성의 그늘 아래 범죄가 증가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범죄에 안전한 도시도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모든 범죄는 지켜보는 눈이 많을수록 감소한다는 점에 아래 자연스러운 감시체계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 생기면 일단 보기에도 마음이 놓이고 훨씬 안전해진다. 그리고 가로등 옆에 구멍가게라도 하나 있다면 밤길에 누군가가 따라올 때 일단 가게 안으로 대피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로등 아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위험한 장소가 아니다.

이처럼 가로등, 삼정, CCTV 등은 지켜보는 눈이 많아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자연스러운 감시체계가 발생할 때 도시의 익명성과 범죄 위험성은 줄어든다.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2015년 청양의 해에 소망을 실어본다. <건축칼럼니스트>

社說

호남고속철 3월 개통, 지역 활성화 계기로

오는 3월부터 서울~광주 구간에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3분이면 갈 수 있게 되고, 목포에서 서울까지도 2시간 5분이면 주파하게 된다. 고속철이 개통되면 이용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만나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역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관광과 투자, 물적·인적 교류 확대 등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수도권 역류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많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고속철이 개통된 부산과 대구만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개통 전에 비해 나아지지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고 한다.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체 수가 줄어드는 등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KTX 호남선 역시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점을 감안한다면 호남 KTX의 ‘수도권 빨대’ 현상은 KTX 경부선보다 훨씬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몇 년전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하나 비고 우위와 열세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사람과 돈을 광주·전남에 모으는 ‘역빨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KTX 대응책 마련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나서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 불과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 시·도와 관련 업계, 지역민이 힘을 모은다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늪에 더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전남 심정지 환자 생존율 전국 꼴찌라니

전남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해 병원에 옮겨진 환자 중 살아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송시 응급조치가 미숙하고 병원의 응급실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4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전남 지역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환자들의 소생률이 1.3%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 1050명 중 21명만 뇌손상 등 후유증 없이 살아났으며 소생률도 전년에 비해 1.6%가 떨어졌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이며 서울(8.9%)과 대전(8.2%), 대구(6.0%), 부산(5.4%) 등 대도시권은 물론 전국평균(4.9%)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소생률 역시 4.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심장마비는 시간과 싸움이다. 응급상황 발생 직후 후유증 없이 살려내는 이른바 ‘응급조치 골든타임’은 3~5분

이다. 이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만 제대로 한다면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급선무다.

전남의 경우 노인들이 많아 응급조치 등 대처가 미숙한 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지역도 놓여온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변명이 불가하다. 응급 상황 발생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급차가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비율도 34%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난 5년 새 국내 심장마비 환자는 27%나 급증했다. 정부는 예산난을 핑계로 중단했던 ‘놓여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전남도는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구급 지도의사가 없는 전남의 10개 군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의 소생률을 최소한 전국 평균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2015년은 바르게 보고 바른말 할 수 있는 나라로



원 광 나주 원각사 주지

올해도 벌써 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 번 잘못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태를 간단하게 짚어 보고 올 한해는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그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해 발표하는 것이 어느덧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2014년은 위낙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지라 올해는 어떤 말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힐까 기다렸는데,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선택되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기(史記)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교가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胡亥)를 황제로 세우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뒤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며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칩니다”고 거짓말한 것이 유래합니다. 호해는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오”라며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조교의 횡포를 두려워한 대부분의 신하들이 말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조교는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을 기억해 두었다가 죄를 씌워 죽였다고 합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처음에는 윗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일컫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흑백이 뒤바뀌고 사실이 호도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4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까지 온 나라를 들쭉이게 만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한해입니다. 또한 지난해 만큼 본질이 사라지고 지엽(枝葉)만 난무한 한해도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아픈 기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

에 대한 치유가 선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만 남아 정작 본질은 기억에도 없는 한해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의 정책결정의 난맥이나 국민과의 소통 부재라는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문건을 누가 유출했느냐’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만 묻혀 흐지부지 사그라지는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재벌로 대표되는 상류층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나, 기업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질타해야 할 사건의 본질은 묻혀버리고 개인의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진 ‘땅콩 회항’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잘못된 점을 명명백백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이나 과정의 지엽적 문제만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응급처치만 남아 떠도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몇몇 희생양들을 내세워 사건을 무마하고 마는, 말 그대로 미봉책(彌縫策)의 사회가 되어버

린 것입니다. 사고는 똑같은 양상으로 재발하고, 소통은 불통이 되고, 소위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는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급격한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후퇴와 같은 의미일 텐데, 우리 사회는 개혁(改革)은 고사하고 개선(改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혁(改善)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록위마를 생각하다 문득 “말을 가리키면 말을 보아야지 손가락같은 왜 보고 있냐”라는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도 근본적으로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을 경계하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현재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경구(警句)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굳이 사자성어로 바꾸자면 ‘지월관지(指月觀指)’ 정도가 될까요. 손가락에 미혹(迷惑)되지 않고 달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회, 본질을 꿰뚫어 잘못된 점을 고감히 개선할 수 있는 사회, 지월관월(指月觀月)할 수 있는 사회가 2015년에는 꼭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고

인성교육, 그림책으로 시작하자



김명화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인성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 교육전문가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대대로 이어져온 삶속에서 인성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 일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된 세계 최초의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장은 “21세기 대

한민국의 목표는 물질적 성장에 걸맞은 정신과 가치의 성숙을 이뤘는 것”이라며 “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선진 국가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책임 있는 주인공과 타인을 존중,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유아교육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먼저 법안을 통과 시켜 인성교육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세웠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인성의 시작은 ‘밥상머리 교육’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유아기부터 삶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어 점수 따기, 스펙 쌓기가 되는 현 상황이 동방예지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으로 지정된 인성교

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괴테는 “내가 인생 불변의 법칙을 배우게 된 것은 대학 학장시절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던 옛날이야기 속에서다”라며 전래동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요즘은 엄마의 무릎을 베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들려줄 할머니도 자주 범지 못한다. 이러한 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을 통한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벤야민에 의하면 “예술작품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간의 지각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다. 인간 지각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 중에서 ‘미디어가 매시지다’라는 것처럼 시각적 메시지가 강한 그림책이 상호작용에 의한 감성적인 체험이 되므로 인성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본다.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시대적 문제에 반응할 뿐 아

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시대의 담론과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다.

백희나 작가의 ‘달사베르’, 권정생 선생님의 ‘월길간다’, 이덕배의 ‘술이의 추석 이야기’ 속에는 나눔, 배려, 협력인성의 요소가 많이 배어 있다.

최근에 그림책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각적인 것에 익숙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 작가의 그림책은 한국인의 정서가 듬뿍 배어 있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으로 연결될 것이다.

인성교육은 그림책으로 시작하자.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유아기부터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을 통해 미덕을 찾는다면 인성이라는 상호작용의 서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無等鼓

볼운했던 화가 고흐에게 동생 테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네 살 터울의 테오는 평생 고흐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자였다. 서른 일곱 살 되던 해 고흐는 권총 자살을 시도했다. 3일 후 “산다는 게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란 말을 남기고 떠난 고흐의 임종을 지킨 이도 테오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테오 역시 정신착란을 일으켜 숨을 거둔다.

고흐는 동생 테오와 700여 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는 동생과 편지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예술관을 토로하며 힘을 얻었다.

테오와 나는 편지가 담긴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편지를 통해 세대를 넘는 깊은 우정을 나눈 이들이 있다. 의사면서 시인인 마중기와 가수·작곡가이면서 화학자인 루시드 폴이다.

두 사람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예술가로 활동하는 점, 미국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먼 이국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았다. 두 사람의 편지글은 ‘아주 사적인, 긴 만남’, ‘사이의 거리만큼, 그리운’ 두 권의 책

으로 묶여 나왔다.

최근 75세 노(老)교수와 34세 ‘날뻐수’가 주고 받은 편지를 담은 ‘가장 사소한 구원’을 인상깊게 읽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주영대사 등을 역임한 라종일 한양대 석좌 교수와 10대 때부터 글쓰기로 이름을 알린 김현진 씨가 주고받은 서른 두통의 편지다.

5년 전 라 교수는 김 씨의 책을 다른 서평을 보고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편이를 주고 받았다. 그는 동생과 편지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예술관을 토로하며 힘을 얻었다.” 교수의 말에 위로

를 얻은 ‘집도 절도 백도 없는 도시 빈민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 테오와 나는 편지가 담긴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편지를 통해 세대를 넘는 깊은 우정을 나눈 이들이 있다. 의사면서 시인인 마중기와 가수·작곡가이면서 화학자인 루시드 폴이다.

두 사람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예술가로 활동하는 점, 미국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먼 이국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았다. 두 사람의 편지글은 ‘아주 사적인, 긴 만남’, ‘사이의 거리만큼, 그리운’ 두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최근 75세 노(老)교수와 34세 ‘날뻐수’가 주고 받은 편지를 담은 ‘가장 사소한 구원’을 인상깊게 읽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주영대사 등을 역임한 라종일 한양대 석좌 교수와 10대 때부터 글쓰기로 이름을 알린 김현진 씨가 주고받은 서른 두통의 편지다.

5년 전 라 교수는 김 씨의 책을 다른 서평을 보고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편이를 주고 받았다. 그는 동생과 편지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예술관을 토로하며 힘을 얻었다.” 교수의 말에 위로

를 얻은 ‘집도 절도 백도 없는 도시 빈민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

노교수의 답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마 케 팅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